

그림으로 본 지역별 석유소비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별 유류소비를 그림으로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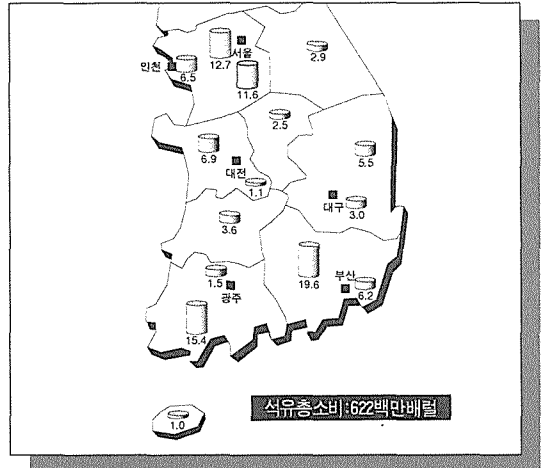
석유소비 경남·전남·서울의 順

지방자치단체중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석유 제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석유소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B-C유(25.7%)와 나프타의 소비에 기인한다.

B-C유와 나프타는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들 두 지역이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석유화학원료인 나프타를 제외한 연료유만으로 보면, 북부 경질유, 남부 중질유의 소비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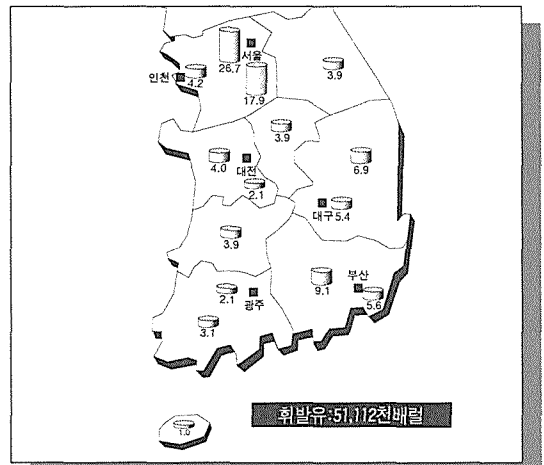
경남·전남에 이어 서울이 제3위의 석유소비지이다. 서울에서는 휘발유·등유·경유 등 소비성 석유제품이 주로 소비되고 있다.



주) 숫자는 %임. ·1994년 실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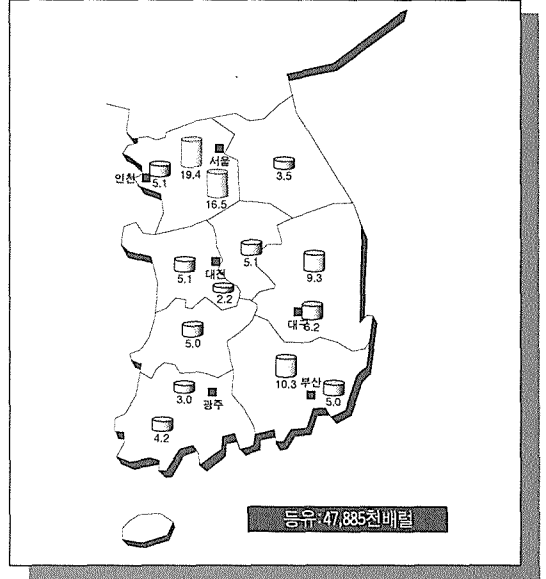
휘발유는 수도권이 전국 소비의 1/2차지

승용차 연료인 휘발유는 서울이 전국총소비량의 1/4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소비량이 전국소비량의 약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유소수는 전국 주유소수의 약27%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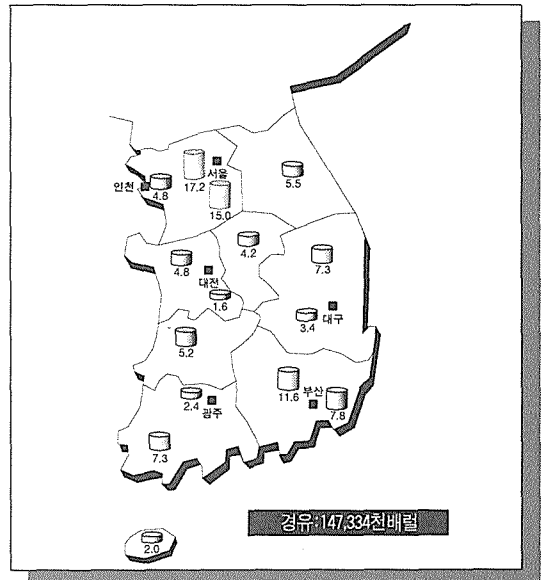
등유는 추운지역에서 많이 소비

주로 가정·상업부문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는 기온이 낮은 북부지역의 소비비중이 높다.
따라서 휘발유 다음으로 수도권 소비심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아열대성 기후인 제주도의 등유소비비중은 0.3%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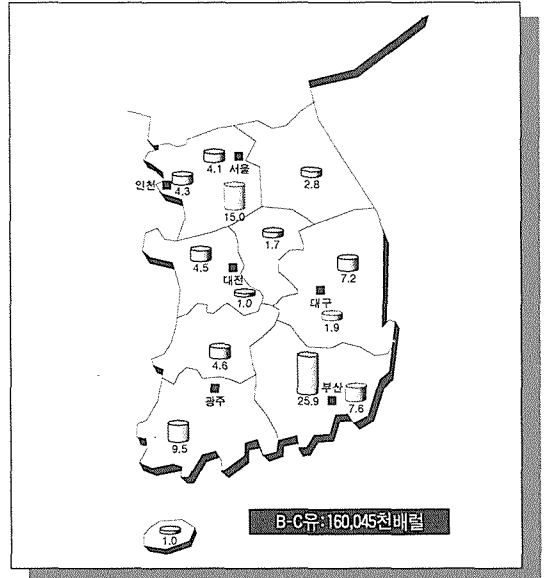
경유는 지역간 소비편차 작아

수송용·가정상업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는 용도가 다양한 만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소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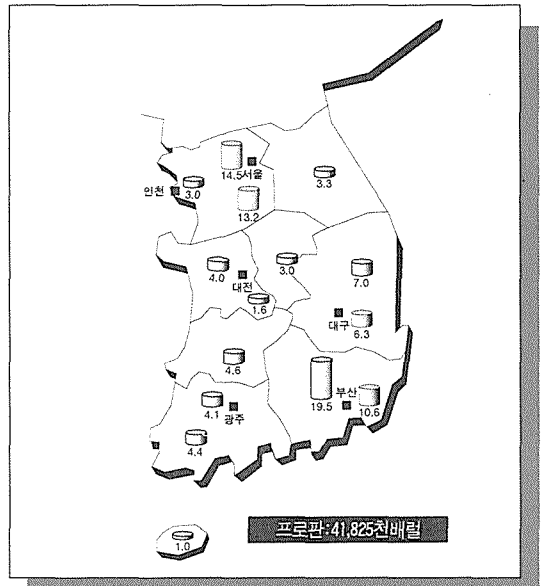
B-C유는 경남·부산이 주소비지

주로 산업용과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B-C유는 연료유중 수도권의 소비비중이 가장 낮다. 공업단지와 병커링 수요가 있는 부산·경남지역이 전국 총소비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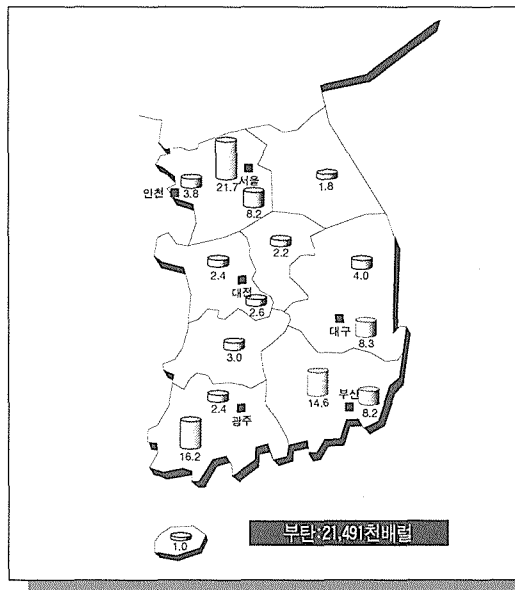
프로판은 LNG비보급지역에서 많이 사용

주로 가정·상업용 취사 난방 및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되는 LPG는 부산·경남지역이 최대 소비지다. 수도권은 LNG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LPG의 소비비중이 낮다. LNG보급이 확대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지역은 LPG소비가 정체 내지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경남지역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탄은 대도시지역 소비 많아

부탄은 주로 영업용 택시와 소형승합차의 연료로 사용되며, 나프타대신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지역과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위치한 전남·경남지역의 소비가 많다.



나프타는 석유화학공업지역에서만 소비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나프타는 여천·울산·대산 등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남·경남·충남에서 거의 전량 소비되고 있다.

